



학 교 명								
성 명								
주민번호							-	

##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모의고사

### ☐ 문제수 및 고사 시간

문제수	시 간	배 점
3	100분	[문제 1]은 총 점수의 34%, [문제 2], [문제 3]은 각각 33%

### ☐ 수험생 유의사항

- 답안지에 고교명, 성명, 주민번호 7자리를 정확히 명기
- 계산기와 통신기기 등은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
- 답안지는 1매만 사용해야 하며, 2매 사용 시 무효(0점) 처리
-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  
(볼펜, 사인펜 사용 가능. 연필, 샤프,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 문제지의 여백은 연습장으로 활용 가능
-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 답안 작성 시 0점 처리 기준
  - 답안지에 답 이외의 특정 표기나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시를 한 경우
  - 검은색 필기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수정이 가능한 연필류 등으로 작성한 경우
  -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
  - 답안지의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문제 1] 다음 제시문(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4점)

(가)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 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구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흠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중략>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찢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켜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흠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첻, 며칠이나 건디나…….”

“뭐라구?”

“아뇨, 백화란 여자 말요. 저런 애들……한 사날두 촌 생활 못 배겨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루 인정이 획 변해 가는 판인데…….”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구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놓구,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똥 땀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답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베풀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나)

글을 여기까지 쓰고 보니, 이제 4·3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그 엄청난 유혈은 생각만 해도 떨미가 솟구쳐 더 이상 쓸 기력이 없다. 그래,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자. 애당초 이 글은 한 아이의 성장 내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물론 그 가혹한 시절은 어린 내 가슴에도 좀처럼 지울 수 없는 죽음의 어두운 이미지와 우울증을 심어 놓은 게 사실이다. 그 우울증의 결과로 나는 오랫동안 말을 더듬었는데 그 흔적은 아직도 내 혀에 남아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란 자신의 성장에 해로운 것은 본능적으로 피해 가게 마련이다. 슬픔, 외로움이야말로 성장에 유해한 물질이 아닌가. 몸 가벼운 만큼이나 마음 또한 가벼워 울다가도 금방 웃을 줄 아는 것이 아이들이니, 어떠한 슬픔에도 기쁨의 양지를 향하여 새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는 것이다.

내 가슴에 짙은 우울증의 그늘을 드리워 놓은 고향 노형리는 오랫동안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불행의 대명사는 다름없는 그 이름, 진외할머니 제사 때 그 암담한 폐허를 본 후로 나는 장성하도록 오랫동안 그곳을 찾아가지 않았다. 가까운 친척들은 모두 읍내로 이사 와 있었으므로 제사 때문에 고향 나들이할 필요도 없었다. 물론 고향 마을 근처까지 가기는 자주 갔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홀로 하는 농사일을 도우려고 근처에 있는 우리 밭까지 가고 오기는 했으나, 정작 마을 안에는 발 들여놓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계성이와 완식이를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는데, 이상하게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는 일도 없었다.

그래서 고향은, 긴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검은 폐허의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그 폐허의 어둠 속에 모든 것은 다 죽고 오직 두 아이만 살아남아 꼬물거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때 헤어지고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계성이와 완식이, 그들은 내 상상 속에 아직도 나이 먹을 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인 것이다.

#### <중략>

요 근래 나는 고향 생각을 많이 한다. 전에 없이 꿈을 많이 꾸고, 그 꿈자리에 고향이 자주 나타나 는 것도 요 근래에 들어서이다. 그에 따라 고향 방문도 전보다 늘었다. 나이가 들면 퇴영적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그런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나의 심경 변화는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긴 것 같다. 전에는 죽음과 나 사이에 아버지가 위치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린 지금의 나는 아무 완충 없이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 언젠가는 고향의 선산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발치에 눕힐 몸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귀향 연습에 신경을 쓰고 있다.

언젠가는, 벗은 팔에 따스하게 와 닿는 늦가을 햇볕의 감각에 자극되어 충동적으로 고향 가는 비행기를 탄 적도 있었다. 그렇다, 늦가을 햇빛이 서울의 내 집 베란다에 따스하게 비칠 때면, 으레 고향 옛집의 마당에 멍석 깔고 노란 햇쭈삿을 널어 말리던 일이 생각나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 햇볕을 허

비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 시장에서 표고버섯이나 가지나물이라도 사다가 말려야 겨우 불안한 마음이 누그러든다. 그래서 설, 추석 외에도 기회만 닿으면 한 번이라도 더 비행기를 타려고 기를 쓴다. 어린 시절의 요람이었던 고향의 자연,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호기심으로 눈이 뚱그래지고 귀가 쫑긋 세워진, 무구한 영혼의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나도 변했지만 고향도 이제 많이 변했다. 옛것들은 망가지거나 허물어져 사라져 버리고, 남아 있는 것들은 향락적 소비문화의 광기와 천박함에 지배당하고 있다. 공항에 내리면, 바로 거기서부터 서울의 연장인 듯이 비슷한 풍경의 시가지가 펼쳐지는데, 최근에는 내 출생지인 노형리까지 확대되어서, 옛것들을 찾고, 옛것 속에 스며 있는 나의 과거를 찾으려는 마음을 어렵게 만든다. 장소들은 있는데, 거기에 깃들었던 나의 과거, 본질적이고 보다 참된 것들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밑에 깔려 버린 것이다. 내 시선을 튕겨낼 뿐, 아무것도 드러내 주지 않은 그 비정성에 나는 넋덜머리를 낸다. 나의 터전이었던 탑동 해변, 병문내, 한내도 콘크리트로 덮여 아주 천박한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 정드르의 옛집도 사라져 버렸다. 남아 있는 것은 오직 바다뿐, 나는 그 바다의 수평선을 시원스레 이마에 두르기 위해서 고향에 가는 것이다.

나는 용두암 근처 바닷가로 가는 길에 정드르의 그 옛집을 찾아가 본다. 그 동네도 완전히 판 모습으로 변해서, 옛것들은 자취도 남아 있지 않다. 집들이 모두 모두 벽돌과 시멘트 건물들로 바뀌어 다른 동네에 온 것처럼 낯설다. 마치 서울의 어느 변두리에 온 느낌이다.

우리 식구가 살던 집도 붉은 벽돌의 다가구 주택으로 변해 있다. 헐어 지은 지 3~4년은 되어 보인다. 하지만 푸근하던 그 검불집은 어디로 갔나. 회상에 잠긴 나에게 그 옛집은 다가구 주택을 짓기 위해 헐린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의 풍화 작용에 의해 좀 슬고 삭아서 지층 속으로 가라앉은 듯이 여겨진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다.

(가)는 황석영의 소설 「삼포 가는 길」의 일부이다. (나)는 현기영의 소설 「지상에 손가락 하나」의 일부이다. (가)와 (나)에 나타난 ‘고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는 ‘정 씨’의 입장을, (나)는 화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600±30자)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33점)****(가)**

A국 언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보도할 때 매우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한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이다. A국 정부는 외교 문제나 군사기밀 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려 애써왔고, A국 대법원도 관례를 통해 전시 진함 향해 계획, 전투 중인 부대의 이동과 같은 안보에 관한 전략적인 정보를 출판하거나 방송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검열을 지지해왔다.

**(나)**

하나의 의견 발표를 침묵하게 하는 데서 발생하는 해악의 특수성은 현세대와 다음 세대를 포함한 전 인류의 행복을 강탈한다는 사실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 보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실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교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만일 그것이 틀리다면 진리가 오류와 충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리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더욱 선명한 인상을 상실하게 되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다)**

언론은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를 편파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 언론사의 이해관계나 특정 사회 집단 또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언론보도를 통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시민의 진정한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허위 과장 보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언론의 생명은 공정성, 진실성, 객관성 등이지 허위, 왜곡, 선정 보도가 아니다. 따라서 언론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정보 전달과 프로그램 제작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라)**

국익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왜곡보도를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것은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사명과도 어긋난다. 워싱턴포스트지의 윤리 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우리는 국익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이러한 이익은 가능한 한 최대한 넓게 정보가 전파됨으로써 가장 잘 달성된다고 믿고 있다. 관료가 국익이나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익이나 공동체의 이익으로 되지 않는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언론과 관련된 윤리들이 제시되어 있다. 언론이 <보기>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윤리가 필요한가.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모두 활용하여, ‘언론의 기본적 윤리’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하시오.(600±30자)

**<보기>**

1986년 북한이 북한강 상류에 금강산 댐을 착공하자,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물로 공격하려는 것이라 보고 대응 댐 건설을 역설했다. 정부 발표의 골자는 북한이 금강산 댐을 폭파하면 서울에 있는 국회 의사당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오를 것이며, 이러한 공격이 1988년에 개최될 제24회 서울 올림픽 경기 대회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3년에 실시된 국정 감사에서 금강산 댐의 위협에 관한 보도는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1986년 당시 언론은 정부의 발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채, 국회 의사당이 완전히 잠기고 63빌딩이 절반 정도 잠기는 등의 내용을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온 것처럼 되풀이하여 보도했다.

[문제 3]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3점)

(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자본주의와 자유 무역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776년 “국부론”을 발표하여, 국가가 여러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자유 경쟁 상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사회 질서가 유지·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기적 본능이 인간 행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함으로써 개인의 이기적 행위가 결국에는 공공복지에 이바지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나)

시장 경제 체제의 경제 주체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 자신들의 이익과 비용만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이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것이 시장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다)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자기 주주나 회사 구성원의 이익 제공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폭넓게 승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견해는 자유 시장 경제의 특징과 본성에 대한 근본적 왜곡이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기만이나 부정 이득 발생 없이 공개된 자유 경쟁 참여라는 게임 규칙 안에서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활동을 하는 것과 그런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것뿐이다.

(라)

전문직 종사자는 장기간의 교육을 받은 직업인으로서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사회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전문직은 사회 공익적 성격을 띠며,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높은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된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는 일반 고객이나 의뢰인이 잘 모르는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손쉽게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제시문 (가)~(라)의 논의를 참고하여, <보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 활동과 전문가의 사회적 책무”라는 주제로 글을 쓰시오.(600±30자)

<보기>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은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모 기업의 대표를 지낸 신모씨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를 2016년 5월 14일 구속했다. (중략)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해당 기업의 전·현직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흡입 독성 실험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 전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연구소 직원들에게 보고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